

의원 5명 많은 더민주, 국민의당에 의장 내줘 후폭풍 예고

광주시의회 열흘 진행 끝 하반기 원구성 마무리

광주시의회가 열흘 간의 진행 끝에 하반기 의장 선출과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양당 체제로 재편된 뒤 처음으로 치른 의장 선거에서 노출된 갈등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광주시의회 하반기 의장에 국민의당 이은방(북구 6) 의원이 선출되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광역의회 의장 자리를 모두 국민의당이 차지하게 됐다. 전남도의회는 앞서 국민의당 임명규(보성 2) 의장을 선출했다.

광주시의회 하반기 부의장으로는 국민의당 박준수(남구 3) 의원과 더민주 조세철(동구 2) 의원이 선출됐고,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국민의당 권욱(목포 2)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석(영광 2)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총선에서 광주와 전남에서 대패한 뒤 광역의회 두 곳의 의장 자리까지 모두 내주면서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주시의회 의장 선거 패배는 더민주로서는 더 뼈아픈 결과다. 더민주의 의장선거에 앞서 당 소속 의원이 후보로 나서면 당선될 뚝뚝 하는 지짐을 중앙당 차원에서 내리는 등 중앙당과 시장이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등 일부 지도부 인사까지 의원을 설득에 나서 광주 총선 전패 후 '마지막 보루'이다시피 한 의장선거에 공을 들였지만 결국 이탈을 막지 못했다.

광주시의회는 더민주 13명, 국민의당

중앙당 지원 불구 내부 분열 시당 “당 윤리심판원 제소” 전남도의회 의장도 국민의당 첫 양당체제 순항 주목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득표수로 미뤄 4명 인원은 다른 정당 후보를 찍거나 기권(후보)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민주의 다수당의 지위에 있는 대전시의회에서도 내분 끝에 당선된 당 소속 의장에 대해 중앙당에서 중징계를 요청해 윤리심판원이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더민주 광주시당은 이날 “일부 의원들의 투표행위에 대해 정당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면서 “이 같은 결과가 빚어진 데 대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고 상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선거에서 더민주 후보를 찍지 않은 ‘이탈 의원’들의 탈당 또는 출당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 배분을 놓고 일어난 마찰도 임기 중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사실상 독점이었던 의회가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되는 등 생소한 경쟁체제로 접어들면서 현안 해결 과정에서 발목을

■ 광주시의회



박준수 부의장



조세철 부의장

■ 전남도의회



권욱 부의장



이장석 부의장

기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 관계자는 “경쟁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견제를 한다면 양당체제가 의정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노출된 갈등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경쟁 관계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와 전남지역 29곳 광역의회(2곳·기초의회(27곳) 중 광주 남구의회를 제외한 28개 의회의 하반기 의장단 선출이 마무리됐다. 의장은 더민주가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의당 9명, 무소속 1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 광역의회 2곳은 모두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차지했다. /최원일기자 cki@



18일 오전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대 하반기 의장 선거에서 심철의(국민의당)·전진숙(더민주) 의원이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투표용지를 검토하고 있다. /최원일기자 choi@kwangju.co.kr

2野, 진경준 구속 맹공...“전면 개각” 한목소리

검찰개혁도 드라이브

진경준 검사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현직 검사장으로 처음 구속된 데 대해 야당은 18일 전면개각을 촉구하고는 등 강공을 퍼는 반면 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청와대를 향해 전면 개각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개혁의 칼을 꺼내들었다. 두 야당 모두 당내의 불미스러운 일로 수세에 내몰렸던 국면에서 탈피해 검찰 개혁과 개각을 화두로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려는 의지로 보인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현웅 법무장관이 사과했지만 조직의 구조적 문제로 생긴 비리는 책

임을 져야 할 문제지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거취 문제까지 거론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총체적으로 무너진 공직 기강과 함께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민 앞에 책임지기 위해 전면 개각을 빠른 시일 내 실시하라고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두 야당은 이날 법조비리 근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각각 개최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도 본격적으로 걸었다.

더민주 토론회에서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민의당 토론회에서는 고위직 판·검사 의 변호사 개입 금지, 평생 법관·검사제 법제화, 공수처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진 검사장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지만, 이번 사건을 검찰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 기소독점주의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는 “육상용”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공직자 비리 수사의 경우 제도 자체보다는 운영의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더민주 전대 추미애·송영길 2파전으로

김부겸·원혜영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 출마 의사 접어 김종인 “당 수준 그 정도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더불어민주당의 8·27 전당대회가 결국 5선의 추미애, 4선의 송영길 의원 간 양자 대결 구도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김부겸, 원혜영 의원이 잇달아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막판 ‘다코호스’로 거론됐던 이재명 성남시장도 지난 17일 출마 의사를 접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지층이 겹치는 것으로 분석됐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불출마는 추미애 의원에게는 호재로 평가받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전대의 흥행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어차피 본선은 대권 레

이스”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 민심의 향배도 주목 받고 있다. 일단 추미애, 송영길 후보 지지 여부와 관련, 호남 지역위원장들은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추미애 의원과 송영길 의원 측은 호남 민심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물 밑으로 지역 위원장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지난 17일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대 구도가 ‘추-송’ 구도로 굳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당 수준이 그 정도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김 대표는 비주류 진영의 제3후보론에 대해선 “고민은 무슨 고민을 하느냐”라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빨리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 정치인이 너무 고민을 많이 하면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후보 난립을 대비해 만들었던 ‘컷오프’(예비경선) 제도도 무용지물이 될 처지다. 더민주의 당권도 전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컷오프를 통해 예선에서 본선 진출자를 3명으로 압축하도록 한 바 있다. 더민주의 전대 후보등록일은 오는 27~28일 이를 통한다.

다만 비주류 진영의 이종걸 의원, 박진 노 진영의 정정래 전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어서 막판 변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 활동 개시

박찬표 목포대 교수 등 위원 15명 전원 외부인사 선임

국회의원 특권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가 18일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소속 위원 1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줬다.

위원으로는 신인영 전 이화여대 총장,

김세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 당 오마이뉴스 편집위원,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선임기자,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진홍순 전 KBS이사, 최민호 배재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등이 선정됐다. 추진위에는 객관적 시각으로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원 외부인사만 참여했으며 위원장으로는 신 전 총장이 맡기로 했다.

정 의장이 위원들 중 4명을 추천하고 새누리당이 4명, 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당이 2명, 정의당이 1명씩 각각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정 위원을 어느 당이 추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이달의 추천 여행 도시! 북경 & 고북수진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TALK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친구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친구 맺
- 우측 상단의 친구찾기 버튼
- ID검색에서 아이디 입력 또는 QR코드 스캔

- ① 동반아동 비자피 포함 (최대 1명)
- ② 보조배터리 제공 (룸 당 제공)
- ③ 과일바구니 제공 (룸 당 제공)
- ④ P&G 생활용품 세트 제공 (룸 당 제공)
- ⑤ 면세점 모바일 선불카드 2만원 권 제공 (룸 당 제공)

* 예약일: 7월 1일 ~ 7월 31일 / 출발일: ~ 9월 20일

유명한 식당 특식 + 미식여행
하나Pack 클래식
[무안출발] 북경 4일

CBPF01_OZY 599,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 ☑️ 호텔: 룡팔레스 호텔 또는 미정 (5성급)
- ☑️ 요일: 매주 화요일
- ☑️ 항공: 아시아나 항공(OZ)
- ☑️ 특전: 베이징서커스(\$20상당)/발마사지(\$20상당)/자장면 요리체험 포함
- ☑️ 특식: 총 5회(이화스프링 향주요리, 오리구이 자장면, 샤브샤브, 광동요리)

호텔 업그레이드 + 단체비자 포함
하나Pack 클래식
[무안출발] 북경/고북수진 4일, 5일

CBPF02_OZG 749,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선택경비 있음

- ☑️ 호텔: 수진 대주점 1박/룡팔레스 호텔 또는 미정 (5성급)
- ☑️ 요일: 매주 화/금요일
- ☑️ 항공: 아시아나 항공(OZ)
- ☑️ 특전: 리무진 버스 이용/베이징서커스(\$20상당)/발마사지(\$20상당) 포함
- ☑️ 특식: 총 3회 (오리구이, 샤브샤브, 한식)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안전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지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액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함.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여행상품]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대한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명자 등록번호 제269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9층(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상담/보통전화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2) ■ 당일 보증보험 22회,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1. 여행 유의 2. 여행 자제 3. 필수 신고 4.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